

보릿고개를 기억하라



박 규 채

(국립공원협회부회장
한일장신대교수)



리 속담에 개구리 올챙이적 생
각못한다는 말이 있다.

형편이 조금 나아지고 나면 그
옛날 어려웠던 일들을 까맣게
잊고 그 어렵고 고달팠던 시절의 교훈을 잊
는다는 뜻이다. 과거 오랫동안 우리에게 그
지긋지긋하던 '날말인' 보릿고개가 있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경고이기도 하
다.

우리들은 불과 20수년전까지만 해도 돈이
될만한 곳이라면 지구의 끝까지라도 달려갔
다.

70년대 말까지만해도 아프리카 해안을 누
비는 라스팔마스기지를 가서 고기잡이를 하
는 원양어선을 타는 일이 그렇게 부러운 직
업이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특근수당이 나
온다는 독일 탄광을 찾아서 탄광 근로자로
간 일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간호대학을 나온 전문인력들이 독일이나 중동지역의 서민병원에 배치되어 노인들의 가장 어려운 병구완을 하고, 그곳 여성들이 한사코 기피하는 최악의 일들을 주저없이 했다.

또 공과대학을 나온 우리의 젊은이들이 섭씨 40도가 넘는 열사의 나라 중동 곳곳으로 달려가 항만을 건설하고 도로를 닦고 중장비를 손수 운전하면서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 온갖일을 다 했다.

그때 악덕기업들을 만나면 수당을 뜯기기도 하고, 또 현지에서 사정을 잘 모르고 음주를 한다든지 회교국가의 규율을 어기면 가차없이 현지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은 일도 있었다. 그때마다 우리들은 얼마나 속으로 울면서 결심을 다졌든가

우리도 잘 살아야 한다. 외국인들에게 멸시를 당하지 않으려면 상당한 국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후로 대략 4반세기가 지나고 나서 우리의 꿈은 이루어졌다.

이제는 1인당 GNP가 IMF 어려움에도 6천달러가 넘고 우리 국내인들이 해외에 나가는 커녕 국내에 있는 3D 업종을 한사코 기피해서 외국의 많은 근로자들이 우리의 3D 현장에서 배치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동남아의 저개발국가와 구사회주의 국가에서 주로 노동 인력이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값싸고 질 좋은 우리 물건을 사기 위해 저개발 국가나 구사회주의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그사람들만을 상대하는 상권도 형성되고 있다.

서울 평화시장이나 남대문 동대문시장 용산의 전자 상가가 이런 외국인들이 주로 찾는 단골 지역이고 부산에서는 유명한 텍사스 골목에 멀리 구소련의 극

동 지역으로부터 아예 전세 선박을 물고온 러시아 사람들의 거래처가 마련돼 있다.

이럴때일수록 우리들은 우리가 어려웠던 그 시절을 생각하며 그분들에게 크게 밀리지 않으면 웬만한 선에서 상거래를 해야겠고 그사람들도 열심히 살다 보면 우리보다 더 잘될수도 있다는 인생의 법칙을 생각하면서 성실하게 대해 줘야 하겠다.

최근 어렵게 돈을 장만해서 우리나라에 찾아 왔던 몽골 상인들을 골탕먹인 사람이 있었다.

집팔고 브로커들에게 상당한 돈을 내서 여권을 마련하고 우리나라에 물건을 사러 왔던 몽골 사람들의 그 피땀어린 돈 1억 3천여만원을 송두리채 떼어먹고 도망간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집단으로 몰려오고 그 동안 서울 명동 성당에서 농성을 벌였는데 이런 국가적인 망신살을 사회사업과 추일화 여사가 거금을 쾌척해서 일을 해결했다.

바로 이런분들이야 말로 진정으로 애국을 하는 분이고 우리의 국위를 멋지게 선양한 분이다.

국가나 사회단체에서 이런 독지가들을 표창해야겠고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우리나라를 찾는 근로자들이나 상인들이 어려웠던 우리의 또다른 자화상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겠다..▲▲

